만리장성은 흉노족, 말갈족 등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시황제)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축 및 신축하여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장성(중국어로 Changcheng 창청)이라고 하며, 만리장성보다 장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장성의 유적은 허베이성 산해관에서부터 간쑤성 가욕관에 이르기까지 지도상으로는 약 2700km이고 중첩된 부분을 고려하면 총 길이 5000~6000km에 달합니다. 장성의 기원은 춘추시대의 제나라에서 시작되어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초, 위, 연, 조, 진 등 북방의 이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국가들이 국경에 북방의 방어를 위해 장성을 쌓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 제나라 등은 북방의 이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쌓은 장성은 초나라를 막기 위해 중국 본토 안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22년에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 후 중국 안에 있던 장성을 파괴하고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 북쪽이 만들어졌던 여러 성들을 보수하고 연결시켜 장성을 쌓았습니다. 기원전 214년경에 완성하였고 동쪽으로는 현재 랴오닝성에 이르렀고 서쪽은 현재의 간쑤 성민 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츠펑 시 등지의 유적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장성은 현재보다는 북방에 위치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만리장성을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집의 재료나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장성의 벽돌을 갖고 돌아가고 댐 공사로 인해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하며 안전하게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전체의 20% 이하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지역마다 이름이 붙은 곳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베이징 부근의 팔달령 장성입니다. 베이징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용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장성중에는 팔달령 장성 사마대 장성, 금산령 장성, 반용산 장성 등 장성들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데 저는 이러한 장성들을 보면서 그 당시 진시황의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시켜 완성했을 장성이 실상 황제의 업적이 아닌 백성들의 업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